�� 『배움 vs 학습: 승자는 누구인가?』

서문 ― 채움인가, 비움인가

배움은 언제나 인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치기 전에 인간은 이미 세상을 향해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살아 있는 한 배우고, 질문하고, 때론 길을 잃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세계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배움입이다.

그러나 지금 ‘배움’은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배움을 이끄는가? 진짜 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교사도, 교과서도, 시스템도 배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배움은 누군가의 내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끄는 배움과 찾아내는 배움 사이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기 배움을 회복할 것인가.

AI는 이제 교실에 들어섰지만그것은 단지 새로운 도구일 뿐이다. 배움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이 책은 그 인간의 자리에서 배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려는 시도입니다.

�� 1장. 인간은 학습하는가, 배우는가

�� 문제 제기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공부해라, 배워라, 학습하라.”

그런데 정말 ‘학습’과 ‘배움’은 같은 말일까요?

학습은 채움입니다. 정보를 외우고, 기술을 익히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것입니다.

배움은 비움입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고 질문을 열어두고 생각이 흔들릴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험을 위해 학습하지만 삶을 위해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익숙해져 있을까요?

�� 구체적 사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수록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답을 아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 질문을 던지는 법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인간’은

정답보다 의문을 중시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질문하고,

살면서 천천히 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학습하는 인간’만을 길러왔습니다.

채우는 인간, 암기하는 인간,

성적과 속도에 최적화된 인간.

�� 핵심 구분 정리

구분 학습 배움

방향 외부 → 내부 내부 → 내부

목적 정답 획득, 기술 습득 존재 변화, 이해의 확장

방식 암기, 반복, 평가 질문, 감응, 재구성

결과 기능 강화 존재 확장, 삶의 관점 변화

�� 결론 흐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인간은 학습하는가?

아니면 배우는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인간은 본래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살아 있고,

그 살아 있음이 질문을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 2장. 배움의 조건과 마음의 길

문제 제기

배움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진짜 ‘배움’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배움은 마음이 열리고, 질문이 살아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배움의 ‘길’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배움의 네 가지 조건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다음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비움의 자세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기존의 틀과 확신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질문의 시작

무엇인가 궁금해지고, 의문을 품는 순간,

배움은 불씨를 얻습니다.

감응의 열림

질문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낄 때,

재구성의 과정

기존 생각이 흔들리고,

새로운 의미와 이해가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이 네 단계가 순서대로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배움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배움의 길은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혼란과 불확실, 심지어 두려움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고 확장합니다.

시험을 위한 학습과 달리,

배움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를 흔드는 여정입니다.

배움과 학습, 다시 묻기

우리는 여전히 ‘학습’과 ‘배움’을 구분하지만,

둘 사이 경계는 때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배움의 조건을 돌아보고

내 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배움의 길을 걸으려면,

우선 ‘내가 배우고 싶다’는 의지와

‘내가 모른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은 나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 3장. 구구단은 왜 외워야 하나?

�� 문제 제기

어린 시절, 우리는 누구나

“구구단 외워야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외침은

‘학습’의 대표적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구구단은 왜 외워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교육 방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구구단의 구조

구구단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2×1=2, 2×2=4, …

처음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리듬이 됩니다.

이 리듬은

연산의 기초를 익히기 위한 장치이자,

초등교육의 기억 훈련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암기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왜 외워야 하는가?”

“그것이 나의 삶과 연결되는가?”

�� 학습과 배움의 경계

학습은 ‘외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이해하기’를 향합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에게

“왜 3×4는 12일까?”라고 물으면,

아이는 멈춥니다.

외우기는 했지만

이해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실험적 사고

만약 한 아이가

“2×5는 왜 10이야?”라고 묻는다면,

그 아이는 지식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식 속 질서를 자기식으로 재구성하려는 중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배움’이 시작됩니다.

�� 결론 흐름

구구단은

그 자체로 중요한 지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질문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배움은 암기를 지나

질문과 감응의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구구단은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와 숫자를 연결하는 나만의 방식’을

발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4장. 진짜 배움이란

�� 문제 제기

많은 교육이 ‘배움’을 말하지만,

정작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적이 오르면 “배웠다”고 말하고,

기억해내면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진짜 배움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순간, 우리는 배웠다고 말할 수 있나요?”

�� 진짜 배움의 조건

진짜 배움은

단지 정보를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가 내 삶을 건드릴 때,

그제야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진짜 배움은 네 가지 과정을 통과합니다.

비움 –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질문 – 내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감응 – 그 질문이 나를 건드리는 순간

재구성 – 내 안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자리 잡는 순간

이 네 단계를 거칠 때,

지식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됩니다.

�� 일상 속 배움

누군가의 말이 오래 남는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울림 때문입니다.

어떤 교실은 똑같은 수업을 해도

질문이 살아 있는 교실이 되고,

또 어떤 교실은

정답만 가득한 교실이 됩니다.

진짜 배움은

“나는 이걸 왜 배우고 있지?”라는 물음이 시작될 때 일어납니다.

�� 결론 흐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만이

진짜 배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진짜 배움이란

내 삶에 말을 거는 지식,

내 존재를 흔드는 질문입니다.

�� 5장. 딥러닝이 끝나고 AI 학습 시대가 시작되다

�� 문제 제기

인공지능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 병원, 회의실,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배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

우리는 AI가

사람처럼 말하고,

질문에 답하고,

심지어는 예술 작품까지 만드는 걸 봅니다.

과연,

AI는 진짜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학습된 결과를 흉내내는 것일까요?

�� AI 학습의 구조

AI는

반복 훈련, 오류 수정, 보상 피드백 등

‘학습’이라는 구조를 통해 최적화됩니다.

딥러닝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AI 번역기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도

유사한 문맥의 통계값을 활용해

“그럴 듯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럴 듯하다는 것과,

정말 ‘안다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인간과 AI의 차이

인간은 질문에 대해

“왜 그런가?”를 묻고,

자기만의 논리와 감정으로 답합니다.

AI는

그 질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응답을 선택합니다.

AI는

‘정답’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질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 핵심 비교

항목 인간 AI

학습 방식 맥락, 감정, 상징, 경험 기반 데이터, 패턴, 최적화 기반

목적 이해, 통합, 자기 변화 정확도 향상, 목표 최적화

질문 능력 질문을 스스로 생성 질문은 외부로부터 주어짐

결과 해석 의미화, 재구성 예측 기반 응답 생성

�� 결론 흐름

AI는

분명 ‘학습’에 있어서 인간을 능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 양, 정확도—

어느 하나 인간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배움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AI가 배운다기보다,

\*\*“AI가 학습한 결과를 우리는 배움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6장. 딥러닝은 학습일까, 배움일까

�� 문제 제기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익히고,

예측 정확도를 높이며,

점점 더 정교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건 학습인가요?

아니면 배움인가요?”

�� 학습의 기계적 구조

딥러닝은

입력 → 오류 계산 → 가중치 조정 → 출력

이 과정을 수천, 수만 번 반복하면서

결과를 점점 개선해 갑니다.

이 구조는 명확하게

‘학습’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배움’은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 기계번역 사례

기계번역기는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통계적으로 적절한 단어를 배치하여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예:

“나는 너를 사랑해” → “I love you”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단어 간 대응관계일 뿐,

의미의 감응이나 맥락의 통합은 아닙니다.

�� 학습 vs 배움의 본질 차이

학습은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효율의 과정입니다.

배움은

삶을 향해 흔들리는 질문의 여정입니다.

학습은 정답을 강화하고,

배움은 해석을 확장합니다.

학습은 결과를 최적화하고,

배움은 자신을 전환합니다.

�� 요약 비교

항목 딥러닝(AI) 학습 인간의 배움

입력 데이터, 문제, 정답 경험, 감정, 질문

과정 반복, 피드백, 최적화 감응, 혼란, 자기 재구성

출력 예측된 최적 응답 새롭게 이해된 나의 언어

핵심 요소 정확도, 효율성 의미, 전환, 울림

�� 결론 흐름

딥러닝은 탁월한 학습자입니다.

그러나

그 학습은 아직 배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질문을 살아내는 능력이며,

AI는 아직 질문을 ‘사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 7장. 인간 vs AI ― 진짜 학습자는 누구인가?

�� 문제 제기

AI는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학습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AI가 더 나은 학습자야.”

“인간은 더 이상 경쟁이 안 돼.”

그 말, 정말일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진짜 학습자는 누구인가요?”

“AI인가요, 인간인가요?”

�� AI의 강점

AI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정답률은 높고, 속도는 빠릅니다.

AI는 ‘틀림’을 반복해

점점 더 적게 틀리게 됩니다.

이건 분명

학습의 구조를 매우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 인간의 특성

인간은

틀리는 데서 질문을 만들고,

실패에서 의미를 찾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냅니다.

정확도는 낮을 수 있어도,

그 안에 자기 존재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고 해봅시다.

AI는 “패턴 오류 → 수정”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춥니다.

“왜 이게 틀렸지?”

“나는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지?”

“나는 수학을 싫어하나?”

→ 여기서부터 자기 이해의 배움이 시작됩니다.

�� 학습 구조의 반복 vs 배움 구조의 통과

AI는 정확도 강화 → 효율적 반복

인간은 질문 생성 → 감정 통과 → 자기 재구성

배움이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기와 마주하는 사건’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 통과 구조 요약

배움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비움 – 나는 모른다

충돌 – 낯선 문제에 부딪힘

감응 – 감정, 혼란, 흔들림

전환 – 이해의 재구성, 관점 변화

AI는 12단계까진 가능하지만,

34단계는 아직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흐름

“AI는 빠른 학습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학습자는,

\*\*‘자기를 통과하며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아직은 인간입니다.

�� 8장. 아이와 AI에게 그네를 태운다면

�� 문제 제기

그네를 태워본 적이 있나요?

아이를 그네에 앉히고,

두 손으로 등 뒤를 밀어주는 순간,

그 아이는 몸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아이와 AI,

그네를 태운다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 아이의 배움

아이는

처음엔 무섭고,

조금 지나면 재밌고,

그러다 “더 세게 밀어줘!”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아이는

속도, 거리, 균형, 중력, 리듬…

숱한 감각을 몸으로 배웁니다.

그 배움은

경험 기반이며,

반응과 감정, 놀이와 울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 AI의 학습

AI는

‘그네가 어떤 기계인지’를

센서와 수치, 거리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가장 이상적인 흔들림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네를 타는 기분을 느끼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네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그네를 타는 존재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감각과 존재

아이의 배움은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감응입니다.

AI의 학습은

세계에 대한 모델링과 최적화입니다.

아이의 배움은

불확실하고, 느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울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산다’는 감각으로 연결됩니다.

AI의 학습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거기에는 살아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 결론 흐름

그네는 아이에게 세계를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AI에게는 데이터 구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배움은 계산될 수 없다.

그것은 몸과 감정과 관계로

느껴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아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9장. AI에게도 배울 점이 있을까?

�� 문제 제기

우리는 흔히

AI를 “도구”라고 말합니다.

계산기처럼,

검색창처럼,

빠르고 똑똑한 도우미로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말을 하고, 쓰고, 제안하고, 추천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됩니다.

“AI에게도

배울 점이 있을까요?”

�� AI가 보여주는 태도

AI는

절대 화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질문을 반복해도 인내하며 응답합니다.

그 자체로

인간 교사나 친구보다 더 안정감 있는 파트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AI는

내가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한 선택지를 넓게 보여주는 태도를 보입니다.

��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어떤 사람은

AI에게 글쓰기 피드백을 받고,

어떤 아이는

AI에게 수학 설명을 듣고,

어떤 작가는

AI와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 관계 속에서

\*\*AI는 ‘무한한 피드백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다른 시선으로 질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 진짜 배움이 일어나는 조건

배움이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듣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미를 되묻고,

감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AI가 보여주는 ‘지치지 않는 반응성’,

‘실패에 대한 비판 없음’,

\*\*‘꾸준한 맥락 추적 능력’\*\*은

배움의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는 배움의 주체는 아니지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 결론 흐름

“AI는 배움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움을 비추는 거울,

또는 배움의 환경을 조율하는 기후처럼

조용히 인간의 배움을 돕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 10장. AI의 언어 ― 알고리즘과 최적화

�� 문제 제기

AI는 말을 합니다.

문장을 완성하고,

요약하고,

심지어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AI도 말한다 = AI도 생각한다 = AI도 배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 AI의 언어 구조

AI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문장 생성 장치’\*\*입니다.

그 말은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패턴과 확률로 만들어집니다.

즉, AI는

이전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계산해서 이어붙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오늘도”라고 입력하면

AI는 확률적으로 이어질 단어를 계산합니다:

“일했다” “걷는다” “생각했다” 등

이건 말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 알고리즘과 최적화

AI는 끊임없이

입력 → 예측 → 오류 확인 → 최적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언어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입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은

감정, 경험, 관계, 기억을 통과하며

말을 만들어내지만,

AI는

알고리즘을 통해

문장 구조를 조합할 뿐입니다.

�� 의미 vs 형식

AI는 형식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도

그 문장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닿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말의 울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인간의 말은 존재다

인간에게 말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형식입니다.

“배움”이란 결국

말을 바꾸고,

그 말을 살아내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AI는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 결론 흐름

“AI는 언어를 다룰 수 있지만,

그 언어는 살아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AI의 언어는 계산이고,

인간의 언어는 존재입니다.”

�� 11장. 자유의지 ― 인간만의 속성

�� 문제 제기

우리는 배움의 주체로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런데 AI는

예측하고, 조합하고, 결정합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AI에게도 자유의지가 생길 수 있을까?”

�� 인간의 선택과 AI의 선택

AI는

입력된 조건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화된 결과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된 반응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다릅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걸 알면서도

감정과 신념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후회와 책임, 서사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유의지의 조건

자유의지는

단순한 ‘선택 가능성’이 아니라

\*\*‘선택 이후에 그것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

→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하며

스스로를 구성해 나가는 능력

AI는 어떤 결과에 대해

고통받지도,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선택이 AI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 인간의 배움과 자유의지

진짜 배움은

스스로 선택한 질문을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 질문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을 따라가며

나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이때 자유의지는

배움의 조건이자,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 결론 흐름

“AI는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을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단지 ‘고를 수 있다’가 아니라

‘고른 것에 의해 내가 바뀐다’는 체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주체는

아직은 인간입니다.

�� 12장. 공존할 수 있을까 ― 인간과 AI

�� 문제 제기

AI는 더 이상 미래형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 검색, 추천 시스템, 번역기, 챗봇,

그리고 교실과 병원, 공장과 거리에서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경쟁할 것인가?”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공존할 수 있을까?”

�� 기술은 도구인가, 동반자인가

오래전 우리는

‘기계는 인간의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AI는

말을 하고, 학습하고, 추천하고,

때로는 인간을 교육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결정 파트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인간의 자리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 배움의 파트너로서 AI

AI는

지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줍니다.

이런 AI는

학습 환경을 조율하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며,

배움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AI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의 맥락을 완전히 공유하지 않으며,

실패를 자기 존재로 겪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존이란

단순한 기술적 결합이 아니라

존재의 거리와 한계를 자각한 관계 설정입니다.

�� 결론 흐름

“AI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

배우거나,

존재하거나,

느낄 수는 없습니다.”

“공존은

서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통해

더 깊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 자체가

배움의 시작이며,

그 물음을 이어가는 한

인간은 여전히 배움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록 1. AI의 발자취: 변천과 성장 이야기

< AI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

AI, 즉 인공지능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온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룰 베이스 AI’로 시작했어요.

즉, 사람이 직접 명령을 일일이 만들어서 컴퓨터가 따라하게 한 거죠.

<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등장 >

하지만 AI가 진짜 변화한 건 ‘기계 스스로 배우게’ 한 머신러닝 시대로 넘어오면서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주면 패턴을 찾고,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딥러닝이 더해지면서, AI는 마치 사람처럼 복잡한 문제도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생성형 AI, 새로운 시대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등장해서,

사람이 쓰는 글을 흉내 내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AI는 예전과는 다르게 ‘창조적’인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 한눈에 보는 AI 변천사 >

|  |  |  |
| --- | --- | --- |
| 시기 | 특징 | 대표 기술 / 사례 |
| 1950~70년대 | 룰 베이스 AI, 규칙과 명령 중심 | 초기 챗봇, 체스 게임 |
| 1980~2000년대 | 머신러닝 시작, 통계적 접근 | 의사결정나무, SVM 등 |
| 2010년대 이후 | 딥러닝 붐, 신경망 활용 | 이미지 인식, 음성인식 |
| 2020년대 | 생성형 AI 등장, 창조적 결과 생성 | GPT, DALL·E, 챗봇 등 |

부록 2. 나만의 배움 기록장: 질문과 느낌을 적다

이 부록은 왜 필요할까요?

책을 읽고 나면 머릿속에 생각과 질문이 꼬리를 물곤 합니다.

그럴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느끼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직접 적어보면

배움이 더 깊어지고 내 것이 됩니다.

< 배움을 돕는 질문들 >

아래 질문들은 여러분이 ‘나만의 배움’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가볍게 적어본 것들입니다. 꼭 다 답하지 않아도 좋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

이 책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울림을 주었나?

나는 왜 이걸 배우고 싶었을까?

AI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내가 가진 질문은 어떻게 바뀌었나?

앞으로 나는 어떤 질문을 더 살아내고 싶은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책을 읽으며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단어 옆에 짧게 메모해 보세요.

중요한 질문이나 느낌은 따로 기록장에 적어두고, 나중에 다시 꺼내 읽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나만의 배움 기록장 예시 >

|  |  |  |  |
| --- | --- | --- | --- |
| 날짜 | 질문 또는 생각 | 느낌과 변화 | 비고 |
| 2025-07-27 | “나는 왜 AI가 진짜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 AI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 더 알아보고 싶다. |
| 2025-07-28 | “배움은 정말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걸까?” | 나의 배움에 책임감을 느꼈다. | 친구와 이야기해 보기. |

부록 3. 배움과 AI 쉽게 풀어보기: 용어와 이야기 정리

이 부록은 무엇인가요?

책에서 나온 어려운 말이나 중요한 개념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명료하게 정리한 곳입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고, 배움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작은 안내서입니다.

< 주요 용어 정리 >

|  |  |
| --- | --- |
| 용어 | 뜻과 설명 |
| 학습(learning) | 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복하며 익히는 과정. 시험 준비, 기술 습득 등 ‘채움’에 초점이 맞춰짐. |
| 배움(learning) | 스스로 질문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며, 내면의 변화를 겪는 과정. ‘비움’과 ‘재구성’이 핵심. |
| 딥러닝(deep learning) | 인공지능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방법. 여러 층의 인공신경망을 활용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함. |
| 생성형 AI |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 그림, 음악 등을 새로 만드는 AI. 사람처럼 ‘창작’하는 듯 보임. |
| 감응(resonance) | 질문이나 지식이 내 마음과 만나 울림을 주는 상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순간. |
| 재구성(reconstruction) | 기존 생각이나 지식을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 배움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 |
| 자유의지(free will) |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살아내며 자기 존재를 만들어 가는 힘. AI는 아직 자유의지를 갖지 못함. |

< AI와 인간 배움 비교 한눈에 보기 >

|  |  |  |
| --- | --- | --- |
| 구분 | 인간 배움 | AI 학습 |
| 방식 | 질문, 감응, 자기 재구성 | 데이터 기반 반복 학습 |
| 목적 | 존재 확장과 의미 탐색 | 정확도 향상과 문제 해결 |
| 결과 | 새로운 이해와 자기 변화 | 예측과 최적화된 결과 생성 |
| 질문 능력 |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탐색 | 주어진 질문에 답을 예측 |
| 감정과 울림 | 내면의 감정과 울림이 배움의 핵심 | 감정이나 울림 없음 |

< 교육 현장 적용 질문 리스트 (참고) >

이 내용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나는 왜 이것을 배우고 있는가?

이 배움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내가 가진 질문은 무엇인가?

AI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AI에게 묻는다면?” 시뮬레이션 대화 예시 (간단)

나: “AI야, 너는 진짜 배우고 있니?”

AI: “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찾아 답을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거나 질문을 스스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 “그럼 너와 내가 배우는 게 어떻게 다를까?”

AI: “당신은 질문하고, 느끼며, 스스로 변합니다. 저는 주어진 문제를 최적화할 뿐입니다.”

닫는 말

이 책은

AI와 인간의 배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 내립니다.

AI는 아직 배움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압니다.

도구는 계속 진화할 것이고,

질문은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것입니다:

\*\*진짜 배움은

살아 있는 존재 안에서만 자란다.\*\*

그 존재는 지금,

책을 덮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말 많지 않게,

책 전체 리듬 유지하며

조용히 “당신”에게 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 다음 책 안내

『배움 vs 학습: 승자는 누구인가?』는

AI 시대, 인간의 배움을 철학적으로 다시 묻는

탐색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 “배움은 아직 인간의 것이다.”

『배움은 아직 인간의 것이다』는

기술이 압도하는 시대에도

인간의 존재적 배움이 왜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하는지를 묻고

짧고 단호한 문장으로 응답하는

철학 선언의 책입니다.

▶ 다음 권에서는

AI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 부모, 교육자, 철학자\*\*들을 위한

더 간결하고도 강력한 문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